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인당 20만원'

'수급조절용 벼' ha당 최대 550만원 지원

고유기등 가계부담 완화 일환 30일부터 한달간 1·2차 신청 마을별 현상방문 접수·지급도

경남 산청군이 지속되는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위기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기준일인 2025년 12월31일부터 신청일까지 신청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포카드를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오는 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군민의 편의를 위해 접수 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1차로 30일부터 4월30일까지는 마을별 현상 방문 접수를 실시해 신청 접수와 지급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차 기간인 4월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할 된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경남도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고, 전라작물직불제와 연계해 벼타작(ha)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쌀값 상승으로 벼 재배 면적 증가가 예상되자 도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남도, 논 타작물 지원사업 신규품목으로 추가 일반 벼 대비 안정적 소득... 공급과잉 사전 조절

수급조절용 벼 재배 확대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을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 확대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을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전라작물직불금 500만원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500만원을 더해 ha당 총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벼 재배 대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면서 쌀

공급 과잉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돼 밥할 시장에서 사재기에 격리하고, 쌀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품목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전라작물직불제는 식량작물 생산을 높이고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접합처 기자 kij@siminibo.co.kr



의용소방대 기념식. 경북 구미시가 지난 19일 구미시북합소포츠센터에서 '의용소방대 기념식'과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화재예방, 응급처치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다. 사진은 김경호 시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구미시, 중동사태 대응 긴급자금 100억 투입

중소 1곳당 최대 10억 자금대출 2년간 연 2.5% 이자보전 지원 소상공인엔 7000만원 특례보증

경남 구미시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경쟁안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쟁안정자금 지원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용자를 지원하고 2년간 연 2.5%의 이자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병행 추진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23일부터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의 추천을 거쳐 협약 금융기관에서 용자가 실행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경북시농보충재단 구미지점 상담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중동 사태 등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미=백성민 기자 pbs@siminibo.co.kr

체류형 관광객에 '여행비 50%' 순천시, '반값 STAY' 환급행사

전남 순천시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순천시 봄날의 힘보, 반값 STAY'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순천을 방문하고 자 하는 외국인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지역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체류 ▲주요 관광지 1곳

이상 방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내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하면 된다. 조건을 모두 만족한 여행객에게는 전체 여행 경비의 50%(최대 10만원)를 모바일 순천시방탈스폰으로 환급(페이백)해 준다. 신청 희망지는 방문 5일 전까지 네이비플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다. 담당자 승인 후 해당 기간 동안 순천 여행을 즐기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조건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이은석 기자 lms@siminibo.co.kr

일림산 철쭉군락지 일제 정비 보성군, 5월2~4일 '문화행사'

전남 보성군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림산 철쭉군락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볼품 있는 철쭉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 정비와 생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월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일림산 철쭉군락지 문화행사'를 앞두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급경사 및 계단 구간에 기존 목재 계단을 철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원만한 경사형 우회 탐방로를 신설함으로써 이용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정상 접근 구간 역시 경사 완화형 구조로 보수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 사고 발생률이 높은 급경사 및 계단 구간에 기존 목재 계단을 철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원만한 경사형 우회 탐방로를 신설함으로써 이용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4월 30일에 달하는 일림산 철쭉군락지 정비에 대해 생육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군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보성=황승호 기자 whng04@siminibo.co.kr

강진군,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추진

도비등 총 2억2500만원 투입 예비창업자 8개사 선발·육성

전남 강진군이 전남도 '2026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 강진 로컬비즈니스 G-Start 창업 지원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 지원사

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로컬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군은 도비 8700만원을 포함, 총 2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예비창업자 8개사를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창업 기본교육, 시장 적합성 검증 및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컨설팅, 전문 멘토링, 초기 사업과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존 단순 창업 자금 지원에 그

해남군, 내장향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완공

보충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더욱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색과 자원을 결합한 '강진형 로컬 액티브 스토어'를 육성해 창업일자리 지역 소비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4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참여기업 모집과 선발을 시작으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 사업과 지원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강진=정찬필 기자 jcrso@siminibo.co.kr

중 50억 들어 안전 인프라 확충

지방재정 안정... 선택인양 공간도

전남 해남군은 어촌뉴딜300사업 후속으로 추진한 내장향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내장향 일원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순치명 내장향은 지난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5억원에 포함,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연장과 물양장 확장, 가로 등 설치, 부잔교 보수 등 어항시설을 대폭 정비했다. 보유 어선수에 비해 정박 규모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기상악화 시 안전문제가 대두됐던 내장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파제 연장과 선반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물양장 확장 등 어항의 기능 개선에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더욱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색과 자원을 결합한 '강진형 로컬 액티브 스토어'를 육성해 창업일자리 지역 소비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4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참여기업 모집과 선발을 시작으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 사업과 지원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강진=정찬필 기자 jcrso@siminibo.co.kr

영암군, 경로당 협업작업장 16곳 운영

전남도내 최대... 2년새 11곳 발효식품 생산 등 다양한 활동

전남 영암군이 경로당을 기반으로 한 협업(공동)작업장 운영을 대폭 확대하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모델 구축에 나섰다.

군은 2024년 5곳이었던 경로당 협업(공동)작업장을 올해에는 16곳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는 31% 증가한 규모로, 전남도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지원 6천을 포함해 군 자체사업으로 고강사당 기금 6200만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억여원의 규모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고 지속가능한 작업장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경로당 협업(공동)작업장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 여가용 넘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군은 2026년을 협업(공동)작업장의 전환점 및 내실화에 집중하는 해로 정하고, 양적 확대를 넘어 운영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작업장별 특성화 전

영암군, 경로당 협업작업장 16곳 운영

특히 전환점 분야 특성화를 적극 추진해 이기를 활용한 테리움을 만들고, '예코 어르신 놀이터', '배지를 활용한 농촌 체험' 등 지원실용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은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9월까지 개최되는 원인문화축제가 기간 동안 참여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부스 운영은 1일 근무제를 체계적으로 편성해 추진한다. 영암=정찬필 기자 jcrso@siminibo.co.kr

간추린 뉴스

영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촉박한 주민 참여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은 협약 추진 배경 및 목적 설명을 시작으로 양 기관 대표 인사발, 협약 주요 내용 안내,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이후에는 이로유미 북카페에서 티 타임을 갖고 향후 협력 방향과 연계 가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순회 간담회 개최

순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이정환의원과 주민자치회,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제도와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구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은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읍·면별 기본소득 사용 현황 ▲지역경제 변화 및 소비 흐름 ▲사업 안착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bo.co.kr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순회 간담회 개최

순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이정환의원과 주민자치회,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제도와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구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은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읍·면별 기본소득 사용 현황 ▲지역경제 변화 및 소비 흐름 ▲사업 안착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bo.co.kr

순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이정환의원과 주민자치회,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제도와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구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은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읍·면별 기본소득 사용 현황 ▲지역경제 변화 및 소비 흐름 ▲사업 안착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bo.co.kr

순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이정환의원과 주민자치회,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제도와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구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은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읍·면별 기본소득 사용 현황 ▲지역경제 변화 및 소비 흐름 ▲사업 안착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bo.co.kr

순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이정환의원과 주민자치회,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제도와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구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은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읍·면별 기본소득 사용 현황 ▲지역경제 변화 및 소비 흐름 ▲사업 안착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bo.co.kr

순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이정환의원과 주민자치회,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제도와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구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은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읍·면별 기본소득 사용 현황 ▲지역경제 변화 및 소비 흐름 ▲사업 안착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bo.co.kr

순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이정환의원과 주민자치회,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제도와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운영상 개선 요구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은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읍·면별 기본소득 사용 현황 ▲지역경제 변화 및 소비 흐름 ▲사업 안착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bo.co.kr